

壬寅十二月二十九日

真諫並附

諭中外大小臣庶綸音

白丹亭



直夜安... 直三...  
直夜安... 直三...  
直夜安... 直三...



白丹亭

6022  
30

新故同遊

四

張嘉瑞

在 1911 年 10 月 1 日

10 月 1 日 10 時 10 分

10 月 1 日 10 時 10 分

乾隆甲子年正月日

內賜

健元陵令具性玉

瑞中刻木小臣庶編音一併

命除誥

恩

檢校直閣臣金考



論中外大小臣庶論音

王若曰朝家於德相事每欲一番洞諭而迄未  
之能焉者誠以不忍泚筆故也到今事端層  
發誑惑轉甚若終不諭則是何異於罔民乎  
大抵德相事出之後逆變之作凡幾遭矣湖  
海之獄置之勿論詬天罵日則有澤白焉設  
計稱兵則有仁邦京來等焉是雖改頭換面  
而實則連腸接肚莫不以德相為根柢噫予  
寡人誠不足以孚頑明不足以察奸始忽履  
霜之戒馴致滔天之兇而懲討未竟餘孽益

熾靜究厥由尚誰尤哉然而朝廷之所以受  
侮德相之所以為逆與夫澤徵有白輩之所  
以跳踉而不止者亦自有本末矣大抵有夫  
婦而後有父子有父子而後有君臣君臣父  
子之道寔本於夫婦夫婦者人之大倫而天  
地之常經也故禮著造端之義易垂說韜之  
戒閭閻匹庶猶敷共牢之義况居崇高而基  
治平者哉陰陽乖而雨澤闕宮壺正而教化  
流此釐降所以觀刑而關睢所以為二南始  
也咸恒貞久之道從古聖哲之所必勉則予

雖否德詐或少忽於斯哉然而自在春邸憎  
茲多口中閭之禮度自如外間之辭說紛然  
蓋緣予積忤於丙申逆黨忌奸情之畢燭懷  
反噬之兇圖廣煽譁張之語要作搖撼之計  
而宮闈事秘外人難知則尤謂欺誣易加黑  
白可混無根之謗妄揣之言哆侈嚙啗不勝  
其多而恒簡春坊之酬酢竟載於明義錄中  
為渠作逆之斷案見此者尚可以知予心矣  
然而己亥夏間德相以殿下家事之說向予  
言之夫所謂陛下家事者即何等時何等語

而乃敢以此闖發於筵席乎蓋是時喪變之  
出權奸敢疑不敢言之地密進云云之說其  
所云云有不忍形言予嚴辭斥之而其時閭  
巷之間大播訛傳之說布肆蔽閉帽工避匿  
甚至為官吏者認為真有是事預捉匠手則  
德相時帶戶曹叅判與權奸互相傳說看以  
尋常又於數日後入侍肆然發口是果何許  
心腸噫此等之言奚為而至哉是固予自反  
處而予之所敵體齊尊者非臣子之國母小  
君乎將心之萌無所不至即此一事固已難

容於覆載間矣及其說既不得售則為謀益  
急又密有所云云而德相以某樣道理四字  
登諸章奏夫所謂某樣者果何指也嗚呼斯  
二人者一則以离筵舊僚自負翊戴之勞一  
則以先正後孫久竊山林之名予則篤嘉乃  
之志倚任既重推念舊之意招徠亦勤蓋欲  
休戚與同禮貌無替安富尊榮保其子孫而  
彼乃或為之窩主或為之羽翼表裏締結氣  
焰薰灼謂朝廷莫違於順指謂宸極可弄於  
股掌使予倒持太阿徒擁虛器不奪不厭所

由來者漸矣 宗社大計惟在於廣儲嗣一  
事而自其喪變之初渠輩敢極力沮遏則其  
心所在路人皆知而潛圖之不足唱說之至  
此恣行無君之曾臆顯試移國之手段苟使  
其計得行朝家豈得有今日哉悖逆之奏雖  
秘於筵席而陰兇之跡已露於章奏國如有  
法豈容蕙佩而猶使之杯酒釋權鄉里偃便  
一切辜犯置之勿問則予所以曲保終始者  
其亦至矣豈國家少息云乎哉然其徒黨內  
懷怨懟之心外唱伸救之說做出四字之註

云則不着今本四字之截頭而畢竟以四  
已聞之其疏之草本亦出於衛所醉之本  
者皆可以觀之破語不自意自定粗解文  
就原言正論而故為醫藥之事也則何憚  
乎明言正論而故為醫藥之事也則何憚  
且其四字果為是醫藥之奏又其相耶醫  
藥之方云者與其家事之為是語耶醫  
力沮者在是非有他也夫揀之舉筆之所  
揀擇之舉非有他也夫揀之舉筆之所  
腳謂此四字乃所中殿醫藥之方名門

字改之因予之挽止故也予曾不以衛所所  
聞之說草本所見之語明諭於廷臣使其聲  
罪之辭只及於四字者非為渠也特不忍茲  
也而渠輩乃謂外面彰露者只此四字則猶  
可以漫漶欲以千萬不近之說疑亂一世情  
狀之兇狡吁亦甚矣是則湖海之囚所以自  
干王章而澤徵之兇言泓徵之急書仁邦京  
來之兇謀逆節又相繼而發矣蓋澤徵曾前  
所犯已極兇憯而以渠日記中云云觀之亦  
可見其犯上不道之心素蓄於平日與尚魯



輩心腸無異矣况其語犯中壺者尤極叵測  
至於帳殿之不稱矣身而稱我獄中之不曰  
國家而曰渠實是載籍以來所未聞所未有  
者又况賂結有白共謀繼起構虛捏無專事  
詬罵其指斥內殿之語皆是渠輩所嘗經營  
終不敢售者而反以歸咎於寡躬欲為瑕疵  
之資以售煽動之計而至於泓徵事尚何言  
哉滿紙詬罵之關係寡躬者姑捨是以亘古  
今所無之窮兇絕悖之說至及於不忍言不  
敢道之地故此予所以沫血飲泣即日親訊

快施邦刑者也又若仁邦始則唱嘆妖言誑  
惑人心終則指畫天地排布兇謀以某為大  
將以某為先鋒以某為運糧官起兵於某地  
掠某郡某營由某路而犯闕云者部署已定  
時日有期而其渠帥之脉絡既與澤賊連通  
又其成事之後所欲推尊以為大先生者即  
德相也若其所謂大將京來又是澤賊妻姪  
而聯結六道嘯聚劫奪直趨京都等節與仁  
邦如出一口而直曰德相方在罪中故急於  
救出如是設計納招由此觀之前後獄情豈

非一串貫來而皆以德相為根柢者乎噫好  
生惡死人情之所同苟非其血屬死友孰肯  
為兇逆深污而今則不然天涯地角打成一  
團前茅後殿沕然同情根株盤結脉絡通貫  
寧為賊徒不欲為國家臣子此其故何也如  
德相者雖在無累之時凡厥親知無不知其  
蔑學沒識之玷辱旌招而及夫事端之出特  
以大家之裔朝家不忍加辟罪止薄竄蓋出  
不足責之意也彼遐土不識裏面之類見德  
相之受罪則自懼其并罹丹書臚列便同劄

着於己身法司株連若將延及於渠家無論  
平日親切與否舉懷此一段疑懼此非予臆  
料也湖海囚供至黨禍之說雖面目素昧  
之間有痛痒相關之義於是乎真箇不逞之  
徒因其機而誑惑之恐動之以重其疑懼之  
懷疑懼之懷重則護惜之意深護惜之意深  
則怨誹之念起怨誹之念起則角勝之計成  
矣非不知逆節之不可漫漶而必欲漫漶之  
非不知巨魁之不容伸救而必欲伸救之以  
至詬天罵日稱兵犯關之舉亦皆為之者良

以此也噫何其愚迷之甚也可斥者德相而止耳可罪者德相而止耳其於平人何與哉年來位著無改施措依舊則朝廷之意即此可見何疑何懼而以風馬牛之不相及亦為困獸必鬪之舉哉今夫百家之里一人為盜人將以一人疑百家而為百家者亦將自疑自懼乎妄自疑懼而庇護其盜以盜為非盜也則其可免蔽盜之律乎若能明其為盜而黜之里中則雖以保甲之法之嚴吾聞捕告之有賞而未聞隣比之有累也故予則以為

今之治逆渠率之外尚有開曉之道誅討之中當存叅恕之念而鎮安二字為第一急務誠以此輩罪雖犯於惡逆而情則本於疑懼也必欲窮其黨與發其隱情期於剷殄無遺則非予之所欲聞也然惟其變恠之層疊未免中外之驚動朝廷四方之表也而氣像未見其安泰舉措或涉於劄勦論人則不擇語句議事則全沒稱停至於諸道密啓雖非樂為而近日營間之登聞者亦或有不當疑而疑不必啓而啓者矣家藏讖緯自有其律而

無恠乎選士愚民之不知為何書者以故紙  
斷簡隻字片語歸之於妖言不軌之科則豈  
不大可哀矜乎外方之景像雖不得目見而  
驛騎旁午道路騷擾追捕間發閭里駭懼一  
人在囚而一家悲泣一村有事而一邑恐動  
即理勢之所必然也於斯時也又或偵探通  
於巷陌摘發及於偶語則大非朝家之本意  
而抑恐人心波蕩靡所底定無益於鋤治之  
實而反增其疑懼之情也肆予罄論亂逆之  
源委仍敷鎮安之至意咨爾大小臣工必以

向所稱開曉之道參恕之念各自銘佩兢和  
勉勵誘掖於未涿之前酌量於已犯之後雖  
使隄防不弛勿令坑阱或廣寧失不經惟務  
咸新為方伯者亦宜廣布德意期變汙俗雖  
有小醜殘孽自爾現露者如非關係甚重呼  
吸可虞不須事事上聞自本營隨其輕重或  
諭或治由內及外壹是皆以鎮安為主以體  
予苦心以輔予惠澤無使予有其言而無其  
實有其志而無其效也嗚呼臨御六載治教  
不立遷善者未聞而罹辟者日衆無望空園



之化徒煩下車之泣予於是重為之慙歎若夫明正德相之罪打破窩藏之地使亂本絕而民志定亦一道也而不此之為意固有在仁邦招出之後衆論難遏雖不得不逮捕而繫囚累日終不親問者亦恐其納供之際或有指擬使予聞不欲聞之語當不忍當之事故耳今日廷臣果能諒予之心乎就其渠魁先施邦刑自餘株連並姑減死噫今此處分諸議必以為太寬而非但予之本意如前所云云值茲大慶之日宜有非常之澤故月初

疏決時雖在丹書之類亦多施曠蕩之澤何  
獨於此輩不然乎有罪者懷息而改圖無罪  
者釋疑而安心咸囿新化同此慶喜則非但  
渠輩之幸即國家之幸故茲諭示咸須聞知

유통외대소신셔륜음

왕이이러트시골으샤되나라히덕상의일에  
무양호번통연히니르고져호되미처능히  
못호자논진실노차마분을적시지못호연  
피러니이제니르러일삿히충충이나고소  
기고호호게호미구을너심호니만일무충  
내니르지아니호죽이엇지백성을소김과  
다르리오대져투상의일이난후에역적의  
변지으미물웃몇번이노호셔와히셔우사  
문투어의논치말고하늘을힐셔리고이를

우짚기는 턱 징과 유백이 잇고 계교를 베퍼  
군사를 모호기논 인방과 경년 등이 이시니  
이것들이 비록 머리를 고치고는 쓸 밧고와  
시나실 인즉 창지년하고 속이니 이어 특상  
으로 배근 본을 삼지 아니하고는 니 업스니 슬  
프다나 파인이 정성이 족히 배안악훈놈을  
감동치 못하고 북은미 족히 배간악훈거슬  
슬피지 못하야 처음에서 리를 뵈는 경계를  
범홀이 하야 저근일이 크기서 리로 길너하  
늘에 닳나 흥악을 날외여 역적치를 미스

지못함이 남은 흥얼이 더욱 성하니 그만이  
그연유를 궁구함면 오히려 누를 허물함의  
오그러함나 묘정의 배업 슈로 음바든 바와  
덕상의 배역적된 바와 다 못 퇴징과 유백의  
무리 배셔 노라 함된 배셔 호 스스로 밋과  
히이시니 대저 부부이 신 후에 부지 잇고 부  
지이신 후에 군신이 이시니 군신과 부조의  
도리 진실 노 부부의 계근 본함 옛날 지라 부  
부랏 거스 사람의 큼 른 귀오던 디의 덧 덧 함  
법이라 그런고로 례에 싣출 갖는 의를 불히

고 단말은 인륜이 부부 듀역에 수레

박회버서지는 경계를 드리워시니 수레

지단말은 부부 화치 못하 연벽이 순치 못

염에 백성이라도 오히려 혼안의 의를 도타

이 허거든 양물며 좁은 디이서치 국평 현하

홀터히냐 음양이 어귀면 비아니 오고 궁중

안히 발나야 교해 흐로느니 이니 강하 신덕

버법을 본배오 니강은 아황터 등의 순의 관

계버 두남 벽나라 희교 해비로 소미된이라

관저는 문왕의 태 함흥에 곳고 오랄도리 함

은 두역 두패 일 품이 니 음양 이 비함 함 네로  
야오 래도 록 변 치아 니 물너 름 이라  
조차 성인의 반듯 시험 쓰논 밴 즉 내 비록 덕  
아 업스 나 엇지 혹 잠간 이 나 여 귀 범 흘 흘 리  
오 그러 하나 동궁 에 이 시 모로 부터 이 만흔  
말에 의이 여 중궁 의례 법은 흐르 고 특 되외  
간에 말은 분분 하니 대개 내 병신년 역적의  
당의 거미 임이 빠혀 저희 간악한 정상을 다  
불러 게 알 물 새려 짐싱 의도로 지버 무노 용흔  
도 모를 품어 낼니 거 죽말을 부쳐 내여 흔드  
러 볼게 교를 짓고 저하야 궁중 에 일이 갑초

여섯사람이알기어려온즉터옥니르되소  
기를더으기쉽고혹빅을가히섯그리라호  
야근본업슨사지람파망녕도이혜아리논  
말을느리며주리미그만키롤이괴지못호  
니역적호렬과상간의츄방에서호던슈작  
이모춤내명의특가온대올나저희역적질  
호던문안이되어시나이롤보논재오히려  
가히내모음을알거시어늘그러호되귀히  
년터름에특상이턴하의집일이랏말노배  
나를향호야니르니니른바폐하의집일이



란말은엇더한데에엇더한말이완디이에  
감히일노벼연석의셔넵드리으대거이셔  
예상스변이나매권간이 권간은역적이감  
히니르지못홀싸헤감히의심하야마만히  
운운하느말을알외니그운운이란밧자는  
차마형용하야니르지못홀지라내엄홀알  
노를니치나그썩녀염수에와전하느말  
이크게전파하야보픈저재는곰초아닷  
고사모하느장인은피하야숨어심하기관  
원된재진실노이런일이잇는가아라미리

장인을잡기갓지너른즉덕상이의씨예호  
조참판을씩여권간으로터브러호가지로  
말을전하고보기를심상히하며또두어날  
후입시에방주히입으로내니이파연엇더  
호모임과창전고슬프다이러호말이엇지  
하야나르렸는뇨이진실노내스스로도라  
블곳이어너와나와몸이갓고놈기갓나  
신하의국모와져근님금이아나냐이런모  
이아니모동아야나르지아날배업스니곳이  
이아일이진실노임의하늘파싸스에응남

기어렵거늘 밋그말이 실어금발의지 못호  
즉싸호미더응급호야또기만히운운호는  
배이셔덕상이아모도리네조로버상소에  
올니니그니른바아모란말은과연무어슬  
마르침고슬프다이두역적이훈나훈츄방  
의벧판원이라스스로나라도은슈고를밋  
고훈나훈선정의<sub>선정은은티척</sub>호트손으로  
오래산님일흠을도적호여시내내알음다  
이너지는뜻이도타와밋어맛지미임의무  
겁고네를싱각호는뜻을미뤄여블너오미

또흔브즈런흐니대개쇼흙파쿠즈물터브  
러흔가지로흐고네르디접흐물고치미업  
서평안코가음열고놉고영화로와그조손  
을보전코져흐미어놀져논어에후와쥬도  
되며후우익도되야안팠그로레결흐야괴  
운파셰염이덥고붓노듯흐야도정은독으  
로고르치블어그릇지못흐리라니르며님  
금을가히다리와손바닥에희롱흐리라닐  
너날노흐여곰태아<sub>이칼일</sub>흙<sub>라</sub>를갓고로잡고  
흐갓빈그르슬가져앗지아니흐면슬희야

아니 함미 말미 아 마 온 배 오 란 지 라 종 요

와 샷 직 의 큰 계 교 는 오 직 저 소 를 저 소 는 나

이 란 발 심 널 니 는 호 일 에 잇 거 늘 그 상 소 변 처

음 으 로 부 터 저 희 무 리 감 히 힘 을 다 호 야 희

짓 고 막 은 즉 그 무 음 잇 는 바 는 길 가 는 사 름

이 다 알 거 시 오 기 만 이 도 모 호 기 즉 지 못 호

야 지 어 말 호 가 이 에 나 르 러 방 주 히 님 금 이

업 손 듯 호 무 음 을 호 호 고 현 현 히 나 라 흘 음

길 손 베 를 시 험 호 나 진 실 노 그 계 피 시 러 금

히 호 호 단 들 나 라 히 엇 지 오 늘 날 이 이 시 리 오

패역히알외미 비록연석에 감초이 나음음  
훈자최이 미상소에 나타나 나라헤만일  
법이이시면엇지 잠간이나 용디 하리오마  
논오히려 하 여금술노권을노케 하고향니  
에편히잇게 하 약온갓죄범을브러 못시아  
니훈즉나의 벼극친히종시를보전 하야준  
재그도훈지극 하 나엇지나라히은혜적다  
니르리오그러 하 나그당이안흐로논원망  
하년마음을품고 밧그로논 구하느말을지  
어네클즈주를내야 나르되어네클즈는중

공던의의약호을방문과일흥난가문에간  
틱호실거조를나른배오다른뜻이업노라  
호니그간틱홀거조는저희무리힘버희짓  
던배여귀이신즉크감히즐오되이를위호  
야이말을호옛노라호며의약홀방문이라  
니르문그집일이라알외던말노더브러호  
엇지그다르노호그대지과연이의약과간  
틱두일을위호야신즉부이니르며의논호  
를무어슬새려짐죽이며리를곰초는말을  
호얏노노비록다만원상소로볼지라도말

익낙은 스스로 잇고 기르친 뜻은 스스로 탄

노하, 니 잠간 문니 료아는 자는 다 가히 보아

씨 칠 거시 오호 갖이 썬이 아니 라 속 위 소 속

소는 국 영의 변 드던 곳 이 라 에셔 저 희 슈 작 하, 던 말은 내

몬 저 임 의 듯 고 그 상 소 초 본 이 또 호 속 위 소

에셔 나 시 니 초 본 에 운 운 호 바 는 이 제 본 데

즈머 라 김 촌 말 파 콧 지 아 니 호, 터 니 필 경 에

네 글 즈 로 버 고 치 기 는 나 의 말 나 기 를 인 연

호 연 피 라 내 일 즉 속 위 소 에셔 드 른 말 파 초

본 에셔 본 말을 북 이 도 정 신 하 드 려 니 르 지



아니 하야 그 죄를 나 토는 말 노 하 여 금 다만  
네 주에 밋게 하 문져를 위 하 미 아니라 특별  
히 차 마 내 지 못 하 미 어 늘 저 희 무 리 이 에 니  
로 되 외 면 으 로 드 러 난 재 다 만 이 네 글 진 즉  
오 히 려 가 히 만 환 하 리 라 하 야 천 만 블 근 하  
말 노 배 윈 세 상 을 의 란 코 저 하 니 정 상 의 흥  
교 하 미 슬 프 다 또 하 심 하 도 다 이 러 하 즉 하  
셔 히 셔 죄 인 의 배 스 스 로 나 라 법 의 범 하 바  
와 특 징 의 흥 하 알 파 흥 징 의 급 하 글 파 인 방  
경 니 의 흥 하 썬 새 와 역 적 정 철 이 또 서 로 나 엇

논지라대개퇴징의전에범훈배임의극히  
훈참훈고제일귀중운운훈거스로배보아  
드또훈가히그범상부도훈논모임이평일  
에본디빠힌거시역적상노의무리로터브  
러다르미업스를볼지라훈물며그말이중  
궁에범훈재터옥극히파촉훈고당전에의  
신이라일곳지아나훈고내로라일곳르며  
옥중에나라히라니르지아나훈고훈클조  
로너르미진실노고금이리로듯지못훈며  
잇지야닌배라또훈물며회뢰로유복을미

자흐가지로써흐야나어니러나빈말을얼  
고업스거슬모화전혀헐썩리고우짓기를  
일삼으니그년던을지척흐는말이다저희  
무리일즉경영흐야미춤내감히발되지못  
흐채라도로혀나의게허물을도라보내여  
하조흐바탕을삼아부처움즉이논계표를  
발되고저흐며홍징의일에니르러논오히  
려엇지니르리오도희예고득히헐썩려사  
지즈미버몸에판계흐자논아직두고고금  
에써쳐업스바궁흥흐고절패호말노버차

마말흐, 지 못흐, 고 감히 너르지 못흐, 썸해 나  
르니, 그런고로 이나의 벼피를 썸고, 눈을  
어금어, 즉일에 친국흐, 약채히, 나라 형벌을  
베, 끈, 밧, 재라, 또인방, 마튼, 놈은, 처음인, 즉, 요  
괴로, 온, 말을, 부, 처, 내, 여, 안, 심, 을, 수, 여, 후, 게, 흐,  
고, 나, 종, 인, 즉, 턴, 디, 를, 기, 르, 쳐, 흥, 흥, 썸, 를, 베, 피  
늘, 노, 벼, 대, 장, 을, 흐, 고, 늘, 노, 벼, 선, 보, 을, 흐, 고, 늘  
노, 벼, 온, 냥, 관, 을, 흐, 약, 이, 모, 짜, 헤, 서, 군, 사, 를, 니  
르, 혀, 아, 모, 고, 을, 파, 아, 모, 영, 분, 을, 노, 락, 흐, 고, 아  
모, 길, 노, 알, 의, 아, 마, 대, 권, 을, 범, 흐, 려, 노, 라, 흐, 던

져항오와태례임의정호고새와날이거약  
이이셔그피슈의뭇낙은임의턱적으르더  
브러년통호고또그일을일운후에츄존호  
야대션싱을삼고져호는밧재곳덕상이오  
그니론바대장경닌는또이턱적의쳐질이  
라여숫도롤년블호야적당을모하검탈호  
야바로셔을노드를정절이인방으르더브  
러훈입으르남고바로폴오되덕상이브  
야호로죄중에잇고로구호야내기급호  
야이러트시계표를베펫노라초소를알외

니일노보건대전후옥정이엇지흔곳으로  
세여다덕상으로버근본을삼치아닌재리  
오슬프다살기틀쵸하하고죽기틀아쳐하  
문인정의기트배니진실노그혈속파죽자  
하느벗이아니면뉘즐겨흥흥역적을위하  
야므드러더레이리오마논즉금인즉그러  
치아니하야하늘사와싸모통아에흔몽치  
니겨일위압파뒤히호놀기치뜻이구트야  
블희서러얼기이고익낙이통흥며세이여  
태라리역적의무리될지언정나라신조는

되고져 아니하니 이노그연피엇지 함미노  
덕양근튼쟈노비록죄업슬새에이셔드물  
웃그친히아닌그후문이업고지식이업  
서부르미도로혀욕된주를아직못함리업  
스되밋일이난후특별히대가의조손으로  
배나라히차마일함을더오지못함야죄약  
간귀향보내는디그치니대개족히척망치  
아닌는뜻으로나미라져면싸히속을아지  
못함는뉴는덕양의죄남으볼보고스스로  
그후가지로결닐가두려죄안에노럴함을

문득 제몸에 다흐니 기치호고 법스에 년누  
호들마치 제집에 미출듯 호야 평일에 친호  
며 아 니 물의 논치 말고 다 이 일단의 심호고  
두려 오물 품 어 시 니 이 논 내 점작 이 아 니 라  
호셔 호셔 죄인 초스에 당해란 말 선 지나 기  
에 니 르 미 라 비 록 면목을 본 디 모 로 논 스 이  
라 도 알 끈 디 서로 관계 호 논 의 논 이 시 니 이  
에 진 짓 몹 술 부 라 그 귀 틀 을 인 호 야 속 여 호  
호 이 며 저 혀 움 즉 여 버 그 의 심 호 고 두 려 위  
호 니 라 영 을 더 호 개 호 니 의 심 호 고 두 려 온



미음이 터흐죽고 호호고 앓기느 뜻이 기쁘  
며 고 호호고 앓기느 뜻이 기쁜즉 원망호고  
우짓노 생각이니러나고 원망호고 우짓는  
상각의 니러난즉 나라 흘겨를 계피이느지  
라 역적의 정절을 가히 만환치 못흐를 줄을 아  
지 못호미 아니로되 반드시 만환코셔호며  
역적의 피슈를 구호지 못흐를 줄을 아지 못호  
미 아니로되 반드시 구코셔호야 베풀하늘을  
헐썩리고 희를 꾸지즈며 군조를 오하대컬  
을 범흐거 조식지 나르히도 호다호느 자는

진설노일노베라슬프다엇지그어리고아  
득흥기심흥노가히물니찰재력상서름이  
오가히죄줄재력상서름이니그네소사름  
이야무어시간에흥리오년니예벼슬을고  
치미업고흥노일은네와마튼즉도정뜻을  
여귀가히볼새시어늘므어슬의삼흥여무  
어슬두려브람에물과쇼쳐로서로밋지못  
함으로배또훈곤흥증싱쳐로반드시바흥  
거조를흥노어제일박집잇는말을에흥  
사름이도적이되커든사름이장초흥사름

으로 배빅침을 의심하고 배빅침된 차도 또한  
장차 스스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랴 망탕도  
이 스스로 의심내고 우려워하랴 그도 적을  
덤고 호호하야 도적으로 배도적이 아니라  
흔즉 그가 히도적 곱손놀을 면하랴 만일 등  
히 그도 적인 줄을 불러 혀 말을 가온대 내친즉  
비록 보갑법 송왕안석의도적이라 의엄하고  
로도 나는 잡아 호호면상이 잇단 말을 듯고  
뒤에 죄잇단 말은 듯지 못하엿노라 그런  
고르나는 배하고 이 제역적 다스리기를 피

슈외예으히러리유하야알게홀도리잇고  
버히며치는가온디도맛당이참작하야접  
어불싱각을두어진정하고평안케홀두클  
지제일급호일이라하느니진실노이무리  
죄는버룩악역에범하여시나정상은의심  
하고두려하모로낮논지라반드서그왕을  
강히하하고그숨은정상을나트아진멸하야  
나문거시업기로괴약호즉나의듯고져하  
논배아니라그러나오직그변과의총첩하  
모로중외의병동하를면치못하니도정은

수방의 옷듬이 어늘괴상의 평안함물보지

못함고거조는 후광양함기에갓가와 광양은

병이단사름을의논함즉말세를희지아

니함고일을의논함즉전혀맛까지정당함

미업고제도비밀함장계에니르러논비록

즐겨함미아니나오소이감영과병영의서

장문함논재도함함맛당함의심치아니함

덕의심이잇고맛당함장계에아니함거슬장

계함니집에참위를 참위는비라두미스스

로그날이이시나면스끝어린빅성이무슨

클인줄을아치못함미피이치아나호지라  
만일넷도희셔러진척장에호낫클주와호  
조각말노요피로온말파불웨호죄에도라  
보낸죽엇지크게가히슬프고불상치아니  
호리오외방경상을비록시러곰보지못호  
나염마는혜여지고도로는소요호매잡으  
라가논이논소에나고녀염파미를음무  
섬고두려호며호사람이가도이면호집이  
슬허을고호미를이일이이시면호고을이  
두려움즈기이곳너세의반드시그러호배

라이세예또혹탐지함이몸에두로나고  
적발함논거시돌히말함논디미촌즉크게  
나라본뜻이아니라혹두리건대인심이파  
탕함야정함배업스리니역적다스리논디  
유익함미업고도로혀그의심함고두려함  
논뜻을더을거시나이러모로내난역의근  
원을다의논함고인함야진정코평안과져  
함논지극함뜻을퍼노니슬프다녀대쇼신  
공은반드시앗가일키른바키유함야알볼  
도리와참작함야접어볼생각을각각스스

로삭여츠며등토아서로힘쓰고기다드마  
무드지아닌전에기르치고임의범후후에  
혜아려비록제방으로음표러지지아니  
게하나함정으로후여음후너르게마라츠  
라리법야닌거슬일로를지언정오직다새롭  
기를힘쓰고방빅된쟈도또훈맛당이넓이  
덕의를베퍼더러인풍속을변히기를괴약  
하야비록쳐근도적과쇠잔후여얼이스스  
로드러나논재이실지라도만일관계심히  
등양고음음애가히근심을될재아너어든모



롬즉이 일마다 올녀 들니 지 말고 본영으로  
셔그경등을 썩라 후니 르고 후다 스려 안흐  
로브터 밧기미 처흔골 마치 다 진정흐고 평  
안키로 웃등을 삼아 배나의 괴로온 마음  
몸바드며 배나의 은혜의 톱톱을 도와 날노  
흐여곰그말만잇고그실이 업스며그뜻이  
잇고그호험이 업게말지어다 슬프다 님어  
흐연지어스히예다스리는교해셔지못흐  
야어진뒤음는쟈는듯지 못흐고 죄에 걸니  
는쟈는날노만하옥을 뷔오는교화는브라

지못하고 후갓수레예느려을물번거게  
 니<sup>수레예느려우단말은하우</sup>시<sup>되인을보시고을으시다</sup>내이에거들  
 붓그리고탄식하노라만일덕상의죄를뵈  
 아다소리고와굴의곰초인싸흘쳐새쳐난  
 의근본으로하여곰쓴허지고빅성의뜻을  
 정하게하느거시또호호도리라이를하  
 아니함은뜻의진실노잇는배의시니인방  
 의초시난후에모든의논을막지못하야비  
 록마지못하야잡아와시나가도완지여러  
 날에미참내친히못지아니하자는호호그

초스홀즈음에후마르치논디이셔날노흐  
여금듯고져아닌논말을듯고참아당치못  
홀일일당홀가두려호기연피라오늘날도  
정신해과연능히내미음을해아리랴고피  
슈롤문져나라형벌을베프고남은간년호  
니논다아직죽기를감호니슬프다이제이  
쳐분을모든의논이반드시버너모너르다  
호려니와다만내본뜻이전의니른바와마  
틀썬이아나라이큰경스날을만나맛당이  
비상은혜틱이이실지라그런고로월초소

결흔췌예비루옥안에잇는뵤라도소흐만  
히광탕흔은턱을베퍼시니엇지홀노아무  
리의게그러치아니호리오죄잇는쟈논은  
혜를싱각하야뜻을고치고죄업는쟈논의  
심을프러미음을평안히하야다새교화에  
드러이경스깃부를흔가지로흔죽다만저  
히다항흔췌어아니라곳나라헤다항흔미  
라그런고로이에늘너뵤니다모름죽이듯  
고알지어다

崇儒重道綸音

附

命

銓

音

選

進

抄

選

仍

行

修

之

七

王若曰崇儒重道四字即我朝家法

列聖相承化理休明而罔不以此為先務旌招  
之禮不絕於巖阿義育之方恒軫於學校是  
故名賢輩出德業彬蔚上而膺朝家之禮遇  
下而為國人之矜式成已利物風行俗易正  
學明而邪說熄節義崇而亂民戢四百年國  
勢之鞏固寔有賴焉多士以寧之休夫豈多  
讓於成周也哉予雖否德亦知儒術之汙隆  
實關國家之盛衰思得賢者而共理意則勤

矣德相以先正之孫竊儒者之名故朱紫莫  
卜干旋誤加畢竟狼狽無復餘地可勝歎哉  
蔡當初招徠之意為是賢裔而既未燭其欺  
盜之實則冀或有一分利益矣及其趨朝之  
後推魯鄙悖之狀和盤托出言之可羞而勢  
利是趨權奸是結表裏和應自陷大戾方其  
虱附豕躅唾罵四起自好之士恥與共立觀  
於故叅判金亮行之決退可知也噫孰謂崇  
儒之舉反為害道之歸也德相之罪名益彰  
懲討方嚴故叅判已不在世而林下之士又

不免零落則士之宗匠人深凶論餘孽跳踉  
愈出愈竒世道之憂已無可言而近日兇賊  
大抵多挾符讖以惑民心夫符讖之說全屬  
妖誕王法之所必禁也粵在

太宗朝廷臣有以寶符有驗為言者

聖祖深斥其非至有卿等皆儒者論說何為至  
此之教自是以後儒教日興而左道日熄  
絕然無聞者久矣而今忽肆行何也是豈非  
陽消則陰長此衰則彼盛故耶其機甚微其  
流甚大若不汲汲救正直恐斯文漸喪妖訛

胥動而國不能為國也。箴讖有律，惑衆有刑，而禁之於其末，不若救之於其本。則崇儒重道，尤是今日之所急也。噫！假托程學而陸案作賊，系出魏公而侂冑亂國，彼德相雖出在儒者，何關在先正？何累尊尚扶植之道？宜及此時，不容少忽。故此申諭，明示予意。而近來抄選在旌招之列者，絕罕。豈曰無其人哉？十室之邑，必有忠信焉，可誣一世也。另飭選曹甄拔問學之士，仍令各道方伯薦進經明行修者，隨即收用。外此凡係振作士氣培養人



才之方廟堂三司之臣亦各留心講究以聞  
以副予衛正闢邪之意也仍

傳曰述矣關西距京負越尚無恠乎土俗之質  
質至若湖西海西皆是先正俎豆之鄉也杖  
屨之所也不幸近日承訛襲訛因疑傳疑未  
見有衛正闢邪之效職由予忝位君師教未  
下孚之致豈道內一二人士之罪也予方反  
省歎歎倘使先正在世世道胡至於此此時  
曠世之感尤不容已西原華陽書院海州石  
潭書院遣閣臣致祭西原則獨享宋文正而

海州則趙文正李文純成文簡金文元宋文  
正五先正與李文成配食云祭文各當親撰  
以下矣適值歲首宣此十行予意竊以為目  
下要務莫大於是故也

乾隆四十七年十二月二十九日

此是已不與

此是已不與

此是已不與

此是已不與

正祖文年 台管

純曆四十七年

西曆一七八二年

